

요한1서 4:13의 번역과 해석¹⁾

정창욱*

1. 문제 제기

요한1서 4:13의 그리스어 원문은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

Ἐν τούτῳ γινώσκομεν ὅτι ἐν αὐτῷ μένομεν καὶ αὐτὸς ἐν ἡμῖν, ὅτι ἐκ τοῦ πνεύματος αὐτοῦ δέδωκεν ἡμῖν.²⁾

이 구절은 다음과 같이 주목을 끄는 몇 가지 요소를 지니고 있다. 첫째로, 맨 처음에 등장하는 전치사구 ἐν τούτῳ가 그 이전의 내용을 받는지, 아니면 문장 뒷부분에 등장하는 두 번째 ὅτι절의 내용을 받는지 분명치 않다. 이 전치사구의 역할에 대한 이해에 따라서 이 구절의 의미도 다르게 드러난다.³⁾ 두 번째로, 마지막 부분의 ὅτι절 안에 있는 또 다른 전치사구 ἐκ τοῦ πνεύματος의 역할과 의미가 명확하지 못하다. 이 전치사구는 ‘주다’를 의미하는 δίδωμι

* Vrije Universiteit Amsterdam에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총신대학교 신학과 교수. cwjung21@gmail.com.

- 1) 요한1서의 번역 문제를 다룬 논문이 많지는 않지만 몇 편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송영목, “아프리카스 성경의 번역 분석 - 요한1서 1장을 중심으로 -,” 「성경원문연구」 46 (2020), 220-242를 들 수 있다. 또한 간접적으로 번역 문제를 다룬 논문은 정창욱, “요한1서 3:6, 9절의 죄 문제 재연구,” 「성경원문연구」 41 (2017), 206-227에서 찾을 수 있다.
- 2) 밑줄 그은 부분들은 주목해서 봐야 하는 요소들을 표시해 준다.
- 3) 이 전치사구의 용법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와 그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가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다루어진다.

동사와 직접 연결되는데, 이 문장에서 동사의 직접 목적어는 결여되어 있는 채로 전치사구만 쓰이고 있다.⁴⁾ 이러한 구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일은 수월하지 않다. 게다가 위의 첫 번째 사항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because’로 번역하고 있는 두 번째 ὅτι 접속사를 어떻게 이해하여 번역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떠오른다.⁵⁾

위에 언급한 사항들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보기 위해서 본문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구절의 보다 정확한 의미 파악과 원문을 반영하는 번역을 찾아가는 작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그렇게 함에 있어서 4:13과 연관성이 있는 구절들을 살펴보면, 특별히 4:13과 상당한 유사성을 지니고 있는 3:24하반을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것이다.⁶⁾ 서로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 구절들에 대한 이해가 각 구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2. 4:13의 한글 번역본과 영어 번역본 비교

2.1. 한글 번역본 비교

위에 제시한 쟁점들을 고려하여 4:13의 한글 성경들의 번역을 살펴보게 되면 특이한 경향이 드러난다.

『개역개정』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므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새번역』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⁷⁾

4) 이 문제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와 제세한 논의는 아래에서 다루어진다.

5) 흥미롭게도 컬리(M. M. Culy)는 이 전치사를 주석학적(epexegetical) 용법으로 보아서, ‘곧’, ‘다시 말해’로 이해한다. M. M. Culy, *I,II,III John: A Handbook on the Greek Text* (Waco: Baylor University Press, 2005), 112.

6) 두 구절 사이의 유사성은 쉽게 인식되며, 주석가들은 이러한 관계를 지적하며 두 구절의 의미를 밝혀내려 시도하는데, 대표적으로 H.-J. Klauck, *Der Erste Johannesbrief* (Zürich: Braunschweig, 1991), 256-257을 보라. 특별히 줍스(K. Jobes)는 3:24와 4:13이 인클루지오를 형성한다고 주장한다. K. Jobes, *1,2,3 John* (Grand Rapids: Zondervan, 2014), 196. 그 외에도 브라운(R. E. Brown)을 비롯한 대다수 학자들은 두 구절의 유사성에 주목하는데, 그들의 저서에 대한 서지 정보는 아래에서 차례로 주어질 것이다.

7) 『표준』의 번역도 거의 동일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공동개정』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느님 안에 있고 또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에 제시한 한글 성경 번역들의 표현 방식들은 서로 차이가 나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첫 번째 전치사구 ἐν τούτῳ에 대한 이해는 일치한다. 그래서 이 전치사구가 뒤따라 나오는 두 번째 ὅτι절의 내용, 곧 ‘그(하나님)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내용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한다.⁸⁾ 그 결과 원문에는 마지막 부분에 있는 ὅτι절을 먼저 번역한 후에 다른 부분과 연결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전치사구 자체는 『개역개정』과 『공동개정』의 번역에서는 거의 아무런 표시도 없이 사라져 버리고 접속사 ὅτι는 이유를 나타는 것처럼 표현되었으며, 『새번역』에서는 접속사 번역은 생략되고 전치사구는 ‘이것으로’라고 표현되었다.⁹⁾ 그 결과 전치사구 ἐν τούτῳ와 두 번째 ὅτι의 관계는 애매하게 표현되어 버리고 만다. 게다가 모든 한글 성경은 두 번째 전치사구인 ἐκ τοῦ πνεύματος를 단순하게 ‘주다’ 동사의 직접 목적어로 만들어 버려서 원문의 의도를 제대로 반영해 주지 못하고 있다.¹⁰⁾ 그렇다면 영어 성경의 번역은 한글 성경과는 어떤 차이를 보여주는가?

2.2. 영어 번역본 비교

앞서 살펴본 요한1서 4:13의 주요 한글 성경 번역의 특이성은 영어 성경들과 비교해 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영어 성경의 경우에는 대다수가 첫 번

이것으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압니다.”

- 8) ‘그’가 누구를 지칭하느냐에 대해서 의견이 나누어진다. 자세한 사항을 위해서는 아래 각주 35번을 참조하라.
- 9) 『개역개정』은 ‘주다’ 동사가 그리스어 원문에서 현재 완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로 해석해 버린다. 어찌면 이것은 현재 완료가 어떤 경우에는 영어로 표현할 때 종종 현재로 번역할 수 있는 측면을 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채택되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문맥에서 현재 시제는 합당하지 않은데, 그 이유는 ‘주다’의 현재 완료는 이미 주어진 상태의 현재적 효과나 영향을 나타낼 수는 있어도 계속 준다는 의미를 전달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리스어 현재 완료에 대한 자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D. B. Wallace, *Greek Grammar: Beyond the Basics* (Grand Rapids: Zondervan, 1996), 572-586을 보라.
- 10) 가톨릭에서 출간한 200주년 기념 신약성경은 이 부분의 원문을 반영하는 번역을 제시하는데, 이러한 시도는 원문의 의미를 살리고자 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무르고 그분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심을 우리는 압니다. 그분이 당신 영의 (한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번역에서 첫 번째 구를 생략해 버려서 아쉬움이 남는다.

째 전치사구 ἐν τούτῳ를 ‘by this’로 번역하고, 두 번째 ὅτι 접속사를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로 이해하여 ‘because’로 번역해 놓았다.¹¹⁾ 대표적으로 ESV의 번역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By this we know that we abide in him and he in us, because he has given us of his Spirit.

이러한 번역에 따르면, 첫 번째 전치사구는 뒤따라 나오는 두 번째 ὅτι절이 아니라 그 앞의 내용과 연결되며, 여기서 접속사 ὅτι는 이유를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¹²⁾ 또한 두 번째 전치사구인 ἐκ τοῦ πνεύματος은 ‘of his Spirit’으로 해석하여 그리스어 원문의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데 ESV뿐만 아니라 대다수 영어 성경은 이러한 번역을 채택한다.¹³⁾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다수의 영어 성경은 한글 성경과는 다른 방향으로 4:13을 이해한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어떤 영어 성경은 한글 번역과 궤를 함께하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NIV는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한다.

We know that we live in him and he in us, because he has given us of his Spirit.

이 문장에서 NIV는 첫 번째 전치사구를 생략해 버린 채 두 번째 ὅτι 접속사를 ‘because’로 번역해 놓았는데, 이것은 전치사구를 번역에 포함시키면 이 본문의 의미를 매끄럽게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NIV도 두 번째 전치사구는 원문을 반영하여 ‘of the Spirit’으로 번역하고 있다.¹⁴⁾

과연 어떠한 번역이 원문을 잘 반영하면서도 의미를 제대로 전달해 주는 번역인 것일까?¹⁵⁾ 이러한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 먼저 전치사구 ἐν τούτῳ

11) 대표적으로 다음의 영어 성경들이 이와 같이 번역해 놓았다. ESV, GNV, KJV/NKJV, NAB/NAU, RSV/NRSV.

12) 네스틀레-알란트 27판에서 두 번째 ὅτι 접속사 앞에 쉼표를 찍은 것은 이러한 이해를 뒷받침해 준다.

13) NLT등 소수의 영어 성경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영어 성경이 이같이 번역을 하고 있다.

14) 사전적 의미로 본다면 ‘give of’는 ‘기꺼이 준다’라는 의미이기에 원문을 살리기 위해서 영어 성경은 그런 번역을 택했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그것보다는 원문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전치사 ‘of’를 넣은 것이라 할 수 있다.

15) 의역을 추구하는 NLT같은 영어 성경은 완전히 의역을 해서 한글 성경들처럼 아주 분명하게 첫 번째 전치사구가 두 번째 ὅτι절의 내용을 받는 것으로 해석하고 두 번째 전치사구는 단순히 ‘주다’ 동사의 직접 목적어로 취급한다. “And God has given us his Spirit as

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3. 전치사구 ἐν τούτῳ의 용법

3.1. ἐν τούτῳ에 대한 학자들의 최근 해석 경향

전치사구 ἐν τούτῳ의 용례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견해들이 제시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에는 일종의 의견 일치가 이루어져서 이 전치사구가 사용된 부분의 문맥이 최종적으로 그 용법을 결정한다는 데 학자들은 동의한다.¹⁶⁾ 그렇다면 4:13과 관련하여서는 어떠한 견해들이 제시되고 있는지 살펴해보도록 한다.

3.2. 4:13의 ἐν τούτῳ의 역할

3.2.1. 학자들의 견해

4:13에서 전치사구 ἐν τούτῳ가 그 이전의 내용을 받는지, 아니면 두 번째 ὅτι절의 내용을 받는지 결정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의견도 서로 갈리지만, 많은 경우에 양쪽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듯한 자세를 취한다. 물론 브라운(R. E. Brown)은 확고하게 ἐν τούτῳ가 두 번째 ὅτι절을 지칭한다고 본다.¹⁷⁾ 그러면서 전치사 ὅτι를 ‘because’로 해석한 볼트만(R. Bultmann)의 견해를 소개하는데 이 경우에 전치사구 ἐν τούτῳ는 그 이전의 내용을 받게 된다. 브라운은 그렇게 해도 자신의 견해와 별 차이는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럴 경우에 의미상의 차이가 발생한다.¹⁸⁾ 스몰리(S. S. Smalley)는 이 전치사구가 뒤따라 나오는 내용을 받을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 이전 내용, 특별히 12절의 내용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한다. ‘서로 사랑함으로써 그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 안에 있음을 안다’.¹⁹⁾ 비록 줍스(K.

proof that we live in him and he in us.”

16) 요한복음에 5번, 요한1서에 12번 사용되는 이 전치사구와 관련하여 브라운의 연구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며 많은 학자들이 그의 주장에 동조한다. 그의 주장과 그것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는 Chang Wook Jung, “Interpretation of the Sentences in 1 John 4:17,” *Chongshin Review* 26 (2021), 85-86을 보라.

17) R. E. Brown, *The Epistles of John* (Garden City: Doubleday & Company, 1982), 522. 크루즈(C. G. Kruse)는 각각의 경우에 어떠한 의미상의 차이가 있는지 설득력 있게 설명해 내며 줍스도 그의 의견을 따라간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다루어진다.

18) 구체적으로 어떻게 차이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래를 참조하라.

19) S. S. Smalley, *1, 2, 3 John* (Waco: Word Books, 1984), 249.

Jobes)는 전치사구가 두 번째 ὅτι절을 받는다는 크루즈(C. G. Kruse)의 의견을 받아들여 그 주장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를 피력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전치사구가 앞의 내용을 받을 수 있음을 설명하면서 그 경우에 두 번째 ὅτι가 ‘왜냐하면’을 의미할 수도 있음을 지적한다.²⁰⁾ 야브러(R. W. Yarbrough)도 4:13에서 전치사구 ἐν τούτῳ가 뒤따라 나오는 내용을 받는다고 보면서도 그 이전의 내용과 연결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그렇게 될 때에 두 번째 ὅτι는 이유를 나타내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언급한다.²¹⁾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여러 학자들은 4:13에서 전치사구 ἐν τούτῳ는 우선적으로 뒤따라 나오는 두 번째 ὅτι절을 받는다고 보면서도, 동시에 그 앞의 내용을 받을 수도 있는 가능성을 언급한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중심은 뒤따라 나오는 ὅτι절을 받는다는 데 놓여진다. 그렇다면 과연 4:13의 문맥은 어떠한 견해를 지지하는가?

3.2.2. 4:13의 문맥과 전치사구

(1) 전치사구 이해에 따른 본문의 의미 차이

4:13의 전치사구 ἐν τούτῳ가 어느 부분을 받느냐에 따라서 문장의 의미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논의를 더 진행하기 전에 이 질문에 대해 답을 제시하여 논점을 분명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대해 크루즈는 구문 이해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이 달라지는지를 다음과 같이 간결하게 세 가지로 제시한다.²²⁾

① 전치사구가 그 이전의 내용을 받아서, 다른 믿는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성도의 확신, 곧 자기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자기 안에 거하신다는 하나님과의 연합에 대한 확신의 근거가 되는데, 이때 성령은 그렇게 사랑하도록 동기를 부여하시는 분이시다.

② 전치사구가 뒤따라 나오는 내용, 곧 두 번째 ὅτι절의 내용을 받아서, 성도에게 주신 성령이 참된 진리, 곧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진리를 알게 해주기에 성도에게 하나님과의 연합에 대해서 확신을 준다.

③ ②번과 같이 문장구조를 이해하면서 단순화시켜서 성령 자신이 성도들 안에 계시다는 사실 자체가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동거함에 대한 확신을 준다.

20) K. Jobes, *1,2,3 John*, 196.

21) R. W. Yarbrough, *1-3 John* (Grand Rapids: Baker, 2008), 246 각주 6. 슈트렉커(G. Strecker)도 두 번째 ὅτι를 이유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G. Strecker, *The Johannine Letters*, L. M. Maloney trans. (Minneapolis: Fortress, 1996), 158.

22) C. G. Kruse, *The Letters of John* (Grand Rapids: Eerdmans, 2000), 163.

그렇다면 이 가운데 어느 견해가 타당성이 있는 것일까?²³⁾

(2) 4:13의 전후 문맥

이 부분의 문맥을 살펴볼 때, 위의 첫 번째 견해가 설득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4:13의 바로 앞 구절인 12절에서 서로 사랑해야 하나님이 성도들 안에 거주하신다는 사실이 드러난다고 선언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거주하심이 상호 간의 사랑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말해 준다. 또한 3:18에서 제시한 대로, 행함과 진리는 서로 분리되어질 수 없으며, 따라서 4:13에서 성령의 진리의 빛을 받아 진리 안에서 진리를 힘입어 사랑하는 것까지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로써(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그 안에 그가 우리 안에 머무는 것을 깨닫게 된다. 왜냐하면 진리의 영으로부터 그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²⁴⁾ 곧 그 진리의 계시의 빛에 비추어 예수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시고 그 사랑을 힘입어 다른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함을 깨닫게 되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²⁵⁾ 성령을 힘입어 실제적인 상호 사랑에까지 나아가야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내주하심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된다는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4:13 마지막의 ὅτι 절은 ‘이로써’의 내용을 밝혀 주는 것이 아니라, 이 구절의 앞부분의 내용, 곧 하나님과의 연합을 깨달아 알게 되는 이유와 근거를 밝혀 주는 것이다. 결국 상호 간에 사랑함으로써 믿는 사람들이 그분 안에, 그분이 그들 안에 계시는 연합을 알게 되는데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14절 이하의 내용도 지지해 준다. 14절부터는 진리의 영인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근본적 진리의 내용을 제시해 주는데, 이때 15-16절에서는 사랑 안에 머무는 자가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룬다고 선언한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23) 크루즈는 두 번째 해석이 가장 타당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최근에 줍스도 이러한 주장을 따라간다. Ibid., 163; K. Jobs, *1,2,&3 John*, 195-196. 크루즈는 이 구절과 3:24하반의 연관성에 주목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3장24절 전체와 이 구절이 인클루지오를 이룬다는 주장을 펼친다.

24) ‘이로써’가 12절의 내용을 받는다면 조건절의 내용을 받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스몰리(S. S. Smalley)가 설명하는 대로 12절의 내용은 사랑을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S. S. Smalley, *1,2,3 John*, 249.

25) J. R. W. Stott, *The Epistles of John*, (Leicester: Inter-Varsity, 1988), 166. 그는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는 것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야브러도 비슷한 주장을 한다. R. W. Yarbrough, *1-3 John*, 245-246.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셨음을 믿도록 계시의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성도는 하나님과 동거함에 대해 확신하게 된다는 것이다. 3:18의 설명과 관련해서는 S. S. Smalley, *1,2,3 John*, 199를 참조하라.

시인하고 사랑을 실천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 안에, 그가 하나님 안에 거주한다는 증거다. 이렇게 실제적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며 그럴 때에 하나님과 연합은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4:13의 전후 문맥은 전치사구를 이전의 내용을 받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을 지지해 준다.

3.2.3. 요한1서의 전반적인 문맥

(1) 4:13과 3:24하반의 유사성

이 문제와 관련하여 4:13과 유사한 문장이 등장하는 3:24하반의 그리스어 구문과 내용이 관심을 끈다.

καὶ ὁ τηρῶν τὰς ἐντολὰς αὐτοῦ ἐν αὐτῷ μένει καὶ αὐτὸς ἐν αὐτῷ·
καὶ ἐν τούτῳ γινώσκομεν ὅτι μένει ἐν ἡμῖν, ἐκ τοῦ πνεύματος οὗ ἡμῖν ἔδωκεν.

밑줄 친 두 번째 문장은 4:13의 구조 및 내용과 유사하며, 특별히 첫 번째, 두 번째 전치사구인 ἐν τούτῳ와 ἐκ τοῦ πνεύματος가 모두 등장하고, ‘주다’에 해당하는 동사인 δίδωμι도 동일하게 사용된다. 또한 ‘우리가 안다’와 ‘그가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표현도 등장한다. 내용도 하나님/예수님의 성도 안의 거주함을 다룬다.²⁶⁾ 『개역개정』은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한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²⁷⁾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²⁸⁾

우선 주목해야 할 사항은 첫 번째 전치사구 ἐν τούτῳ의 역할인데, 이 구절에서 『개역개정』은 이것이 뒤따라 나오는 내용, 특별히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부터’에 해당하는 ἐκ τοῦ πνεύματος를 받는 것으로 이해한다. 다른 한글 성경들도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명백하게 ‘성령으로부터’ 안다

26) 이 두 구절 사이의 차이점과 유사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는 J. M. Lieu, *I, II, & III John* (Louisville; London: Westminster John Knox, 2008), 186을 보라.

27) ‘성령’으로 번역한 그리스어 단어 πνεύμα는 성령이 아니라 사람의 영을 지칭하기 위해 쓰였다고 보기도 한다. 하지만 문맥을 고려해 볼 때에 이 단어는 여기서 ‘성령’을 지칭한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자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K. Jobes, *1,2,3 John*, 170을 보라.

28) 『개역개정』의 번역과 관련하여 몇 가지 의문이 제기된다. 먼저 첫 번째 전치사구 ἐν τούτῳ를 4:13에서와 같이 생략해 버리고 있는데 이것은 정당한 것인가? 또한 똑같은 전치사구 ἐκ τοῦ πνεύματος를 4:13에서는 ‘성령을’이라고 직접 목적어로 번역하고, 3:24에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번역해 놓았는데 과연 이것은 합당한 것일까?

고 표현하여 『개역개정』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²⁹⁾ 학자들도 대부분 이렇게 이해하며 영어 성경의 번역은 역본들 간에 차이점이 있으면서도 유사성이 존재하는데, 한글 성경과는 달리 대체로 첫 번째 전치사구 ἐν τούτῳ를 ‘by this’로 표현하고 두 번째 전치사구를 ‘by the S(s)pirit’으로 이해한다.³⁰⁾

과연 어떻게 3:24를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일까? 이 질문은 4:13과 관련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3:24의 두 전치사구의 기능과 용법을 연구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작업을 진행하고자 한다.³¹⁾

(2) 3:24의 ἐν τούτῳ 용법과 2:5의 비교

3:24의 이 전치사구의 이해와 관련하여 2:5의 전치사구의 용례가 주목을 끄는데, 유사한 내용이 그곳에도 등장하기 때문이다. 그 구절을 번역하면서 『개역개정』은 ἐν τούτῳ를 위해서 “이로써”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³²⁾

여기서는 성도가 하나님/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아는 방법을 제시하는

29) 『공동』은 흥미롭게도 ‘성령을 보아서 안다’라고 번역하는데 이 같은 번역은 원문의 의미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다. 오히려 『개역개정』 등에 사용된 ‘성령으로부터 안다’라는 표현이 원문의 의미를 제대로 담아낸다. 이런 번역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바꾼 것이라 여겨진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분 안에 머무르고, 그분께서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신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가톨릭에서 출간한 200주년 기념 신약성경에서는 뒷부분을 다르게 이해한다. “그리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이는 그분 안에 머물러 있고 그분도 그 사람 안에 머물러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분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심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영을 통하여 압니다.”

30) 영어 성경의 번역을 보면 한글 성경의 번역에 대한 의문은 더욱 커진다. 대표적으로 ESV를 보자면, 3:24하반을 이렇게 번역한다. “And by this we know that he abides in us, by the Spirit whom he has given us.” 다수의 영어 성경은 첫 번째 전치사구 ἐν τούτῳ를 ‘by this’로 이해하며(NAB/NAU, NKJV, RSV/NRSV), 거의 모든 영어 성경이 두 번째 전치사구를 ‘by the Spirit’으로 번역한다. 물론 의역을 중시하는 NIV는 분명하게 첫 번째 전치사구가 두 번째 전치사구를 받는 것으로 번역한다. “(Those who obey his commands live in him, and he in them.) And this is how we know that he lives in us: We know it by the Spirit he gave us.” 하지만 앞에서 보았듯이 대다수의 영어 성경은 첫 번째 전치사구도 반영하여 번역한다.

31) 『개역개정』은 왜 유독 이 두 부분에서만 전치사구의 번역을 생략한 것일까? 『개역개정』은 3:24와 4:13을 제외하고는 언제나 이 전치사구를 번역에 포함시켰다. “이로써”(2:3, 5; 3:16, 19; 4:2, 17; 5:2), “이러므로”(3:10), “이렇게”(4:9), “여기에”(4:10). 『개역개정』은 왜 유독 이 두 구절에서만 이렇게 전치사구를 번역하지 않은 것인지 의구심과 아쉬움이 남는다.

32) 이 구절의 그리스어 본문은 다음과 같다. ὁς δ' ἄν τηρῇ αὐτοῦ τὸν λόγον, ἀληθῶς ἐν τούτῳ ἢ ἀγάπῃ τοῦ θεοῦ τετελείωται, ἐν τούτῳ γινώσκομεν ὅτι ἐν αὐτῷ ἐσμεν.

데 이때 전치사구는 앞의 내용을 받는다.³³⁾ 곧 그의 말씀을 지키어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통하여 가능하다. 이 내용은 3:24에 있는 내용과 유사하다.³⁴⁾ 구문 상으로 전치사구인 ἐκ τοῦ πνεύματος를 3:24에서 붙였을 뿐이며 2:5를 이와 같이 이해한다면 3:24에서 이 전치사구는 덧붙여진 내용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만일 2:5의 이해 방식으로 3:24를 해석한다면 다음과 같이 번역할 수 있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이로써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느니라

이 경우에 “이로써”는 24상반절의 내용을 지칭하며, 따라서 ‘그런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심을 알게 된다는 의미이다.³⁵⁾ 다시 말해, 24상반절의 내용, 곧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우리’안에 ‘그(하나님/예수님)가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선언인 것이다.³⁶⁾ 곧 계명들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게 된다. 그때에 성령이 관여하여서 성도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계명 준수와 성령의 역사는 하나로 통합된다.³⁷⁾ 따라서 성도의 하나님과의 연합을 아는 것, 곧 확신을 갖는 데 있어서 두 가지 판단 준거를 하나로 통합하여 주는 것으로 이 문장을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³⁸⁾

33) 브라운이 설명한 대로 이 전치사구가 무엇을 받는가에 대해서 학자들의 의견은 둘로 나누어지지만, 그가 지적한 대로 우선적으로 앞의 내용을 받는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R. E. Brown, *The Epistles of John*, 258.

34) 물론 3:24에서 전치사구 ἐν τούτῳ가 ἐκ τοῦ πνεύματος를 받는다고 주장하며 반론을 펼 수 있지만 위에서 설명한 대로 반드시 그렇게 보기만은 어렵다. 따라서 3:24와 2:5와의 유사성은 인정된다. 이 두 구절 사이의 긴밀한 연관성을 앞서 언급한 줍스, 크루즈, 류(J. M. Lieu) 등 많은 학자들이 인정한다. 대표적으로 J. M. Lieu, *I, II, III John*, 159를 보라.

35) 이 문맥에서 ‘그’가 하나님인지 예수님인지를 결정하는 문제는 수월하지 않으나, 둘 사이의 구별은 요한복음과 요한1서에서 별다른 의미가 없다. K. Jobes, *1, 2, & 3 John*, 169-170; S. S. Smalley, *1,2,3 John*, 212.

36) J. R. W. Stott, *The Letters of John*, 152.

37) 그렇지 않으며, 3:23이 제시하는 계명, 곧 ‘믿음’과 ‘사랑’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과의 연합을 확신할 수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어떠한 경우든지 이 전치사구는 ‘앞에서 언급한 사실에 근거하여’라는 의미를 전달한다.

38) D. L. Akin, *Exalting Jesus in 1,2,3 John*, Christ-Centered Exposition Commentary (Nashville: Holman, 2014), 88. 존슨(T. F. Johnson)도 23절의 두 계명의 준수와 성령의 역사가 하나로 묶여서 하나님과의 연합에 확신을 준다고 설명한다. T. F. Johnson, *1,2, and 3 John*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3:24의 전치사구가 앞의 내용을 받는다고 보는 것을 통하여 말씀/계명을 지키는 것과 성령의 역사가 하나가 되듯이, 4:13에서도 두 가지 측면이 하나로 통합되어야 요한1서의 흐름과 어울린다. 그러므로 4:13의 경우에도 전치사구가 앞의 내용을 받는다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럴 경우에 그 이전의 내용인 계명 준수와 성령의 역할, 특별히 계시의 빛의 조명이 함께 어우러져 하나님과 성도의 연합이 깨달아지게 된다.³⁹⁾

(3) 요한1서 다른 부분의 내용

3:24와 2:5 외에도 다른 부분에서 계명 준수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서로 긴밀히 연결되며 계명 준수와 성령의 역사는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연결된다. 2:20-29에서 “기름 부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에 연결되어 있다(27-28절). 계명 준수를 통하여 기름 부음이 확증되기에 기름 부음, 곧 성령의 역사는 중요하다.⁴⁰⁾ 이렇게 성령의 사역과 하나님 안에 거주, 그리고 계명 준수는 분리되지 않고 긴밀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 5:3-8에서도 성령의 증언하는 사역을 설명하는데, 그 증언을 통하여 진리의 깨달음을 준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이다. 이때에 3절에서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지 않다고 설명하는데 그 이유는 믿음으로 믿는 자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믿음은 요한1서에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다 간 예수님이 하나님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을 의미한다.⁴¹⁾ 그리고 이 믿음은 성령의 증언을 통하여 생겨난다. 또한 성령이 함께하여 힘을 주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⁴²⁾ 이렇게 요한1서에서 계명 준수와 성령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Peabody: Hendrickson, 1993), 92. 3:24의 『개역개정』의 번역은 앞서 제시한 번역을 따라 보완이 필요하다. 『개역개정』 외에 다른 한글 성경들도 거의 비슷하게 이 문장의 구문을 이해하여 번역한다.

39) 요한1서에서 ‘연합’ 혹은 ‘교제’를 뜻하는 코이노니아의 올바른 이해는 중요성을 갖는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김상훈, “요한일서에서의 ‘코이노니아-조예’의 상관적 이해를 위한 의미론적 연구,” 『성경원문연구』 5 (1999), 80-93을 보라.

40) 기름 부음의 구체적 내용을 어떻게 보든지 성령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모든 학자들이 인정한다. 대표적으로 D. L. Akin, *1,2,3 John*, 117-118을 보라.

41) S. S. Smalley, *1,2,3 John*, 271.

42) J. Calvin, *1,2,3 John* (Wheaton: Crossway, 1998), 90. 또한 다음 책을 보라. G. Bray, ed., *Ancient Christian Commentary on Scripture: James, 1-2 Peter, 1-3 John, Jude, New Testament XI* (Downers Grove, InterVarsity, 2000), 219.

4. 4:13의 ἐκ τοῦ πνεύματος의 의미

앞서 언급한 대로 4:13에서 ‘영으로부터 주셨다’라는 표현은 독특하며 주의 기을일 필요성이 있다. 왜 ‘영을 주셨다’라고 하지 않고 ‘영으로부터 주셨다’라고 표현한 것일까? 그리고 무엇을 주었다는 것인가? 사실 무엇을 주었는지를 나타내는 목적어가 이 문장에는 없다.⁴³⁾ 여기서 사용된 소유격과 관련하여 학자들의 의견은 나누어져서 ‘기원/출처’(origin/source)를 나타내는 소유격이나, ‘부분’을 나타내는 소유격(partitive genitive)으로 이해한다.⁴⁴⁾

이것을 단순히 성도들 안에 계신 성령의 존재를 나타낸다고 처리해 버리는 학자도 있다.⁴⁵⁾ 하지만 단순히 그렇게 하고자 했다면 구태여 전치사 ἐκ를 넣을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일찍이 브룩(C. A. E. Brooke) 같은 학자는 유사한 표현이 등장하는 마태복음 25:8에 근거하여 이 소유격을 부분을 나타내는 소유격으로 보아서, 성령의 한 부분을 준 것으로 이해하여 단순히 성령을 주는 것으로 설명한다.⁴⁶⁾ 마샬(I. H. Marshall)의 경우에는 브룩처럼 이 소유격을 이해하면서 결국 성령의 은사를 가리킨다고 주장하며 예언 같은 실제적 은사를 지칭한다고 설명한다.⁴⁷⁾

그런데 이렇게 부분을 나타내는 소유격으로 보는 데 있어 근거로 제시하는 마태복음 25:8에서는 문맥상 그 의미가 너무나 분명한 반면에 요한1서 4:13의 문맥은 명쾌하게 그런 의미를 제시하지 않는다.⁴⁸⁾ 이 전치사는 3:2에서와 마찬가지로 ‘기원/출처’를 나타내는 소유격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

43) S. Kistemaker, *James, Epistles of John, Peter and Jude* (Grand Rapids: Baker, 1996), 336. 그는 아무런 설명 없이 짧게 ‘주다’ 동사의 직접 목적어는 없음을 지적한다.

44) D. E. Hiebert, *The Epistles of John* (Greenville: Bob Jones University, 1991), 207; 또한 D. L. Akin, *1,2,3 John* (Nashville: B&H, 2001), 183을 보라.

45) 대표적으로 위의 각주에 언급한 아킨(D. L. Akin)이 그렇게 하는데, 그뿐만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단순히 그런 의미로 받아들인다. 흥미로운 사실이 줌스의 경우에 드러난다. 그는 3장24절에서는 이 전치사구와 관련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고 그것에 대한 이해가 문장의 의미를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4:13에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이 그저 직접 목적어처럼 쓰였다고 취급한다. 이런 사실은 4:13에서 이 전치사구의 이해가 난해함을 드러내 준다. K. Jobes, *1,2,3 John*, 194.

46) C. A. E. Brooke, *Johannine Epistles* (Edinburgh: T.&T. Clark, 1912), 121; J. M. Lieu, *I, II, & III John*, 186. 스몰리도 유사하게 보아서 이것을 ‘the share of the Spirit’으로 이해한다. S. S. Smalley, *1,2,3 John*, 250.

47) I. H. Marshall, *The Epistles of John* (Grand Rapids: Eerdmans, 1978), 219.

48) 마 25:8의 문맥상 의미는 이렇다. ‘기름으로부터 얼마를 좀 쥐라.’ 그 구절의 그리스어 원문은 다음과 같다. αἱ δὲ μωραὶ ταῖς φρονίμοις εἶπαν· δότε ἡμῖν ἐκ τοῦ ἐλαίου ὑμῶν, ὅτι αἱ λαμπάδες ἡμῶν σβέννυνται.

해 보인다.⁴⁹⁾ 앞서 언급한 대로 이 문장에서 ‘주다’ 동사의 직접 목적어는 없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단순히 성령의 부분을 주신 것으로 이해한다. 하지만 직접 목적어에 해당하는 것을 문맥에서 추론해 낼 수도 있다. 문맥상으로 ‘알게 됨’, 곧 ‘진리의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다. 아니면 이 구절에서 ‘그(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주었다는 표현에 주목하여 그렇게 준 내용물이 ‘사랑의 원동력’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⁵⁰⁾ 이 마지막 부분에 동사의 목적어가 없어서 그 목적어를 추론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의 원동력이라고 이해해야 문맥상으로도 문법적으로도 자연스럽다.

그런데 진리의 깨달음과 사랑의 원동력은 하나로 통합되어질 수 있다. 진리의 영인 성령의 은사를 받아 진리의 깨달음을 통해 성령의 동기 부여와 능력 부여로 성도 간 상호 사랑을 실천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성도 간의 연합/동거를 확실하게 깨달아 알게 된다는 의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랑의 실천은 확신의 조건이 아니라 확신의 근거이다.⁵¹⁾ 이 경우에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존재는 성도 간의 상호사랑과 별개가 아니어서 그 당시 분리주의자들처럼 기름 부음, 곧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짓 영을 받은 것이 된다.⁵²⁾ 이렇게 되어 성령의 존재와 계명 준수는 하나로 통합된다. 이 같은 해석은 요한1서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요한복음의 내용에도 잘 부합된다. 요한복음에서 성령의 사역은 외적인 계명 준수와 나누어지지 않으며, 오히려 외적 행위를 통하여 성령의 존재와 소유는 드러난다.⁵³⁾

앞서 살펴본 3:24에서도 성도의 확신, 곧 하나님 안에 자신이 거하고 하나님이 자신 안에 거하신다는 인지적 확신이 계명을 지키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것과 관련하여 성령이 깨닫게 해 주는 것이었다.⁵⁴⁾ 그 구절에서 성령의 존재와 역사는 계명 준수와 별개의 것이 아니

49) 흥미롭게도 대다수 독일어 성경은 기원이나 출처를 나타내는 von을 사용하여 이 전치사를 번역한다.

50) S. S. Smalley, *1,2,3 John*, 249-250. 그는 단순히 성령을 주셨다고 이 부분을 이해하지만 그의 설명을 자세히 보면 결국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사랑을 갖게 된다는 의미를 전달한다. 크루즈도 비록 직접 목적어가 무엇인지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 그는 성령이 자기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그 진리를 믿게 하시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C. G. Kruse, *The Letters of John*, 163.

51) J. R. W. Stott, *The Letters of John*, 166.

52) 요한1서의 대적자들은 분리주의자들로 명명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원래 요한교회에 속하였으나 그곳으로부터 분리되어 나갔기 때문이다. 이들의 정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자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R. E. Brown, *The Epistles of John*, 49-68을 보라.

53) S. S. Smalley, *1,2,3 John*, 250.

54) 3:23에 따르면 계명은 두 가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신앙)과 서로 사랑

었고 계명 준수도 성령의 도움으로 이루어졌으며 계명 준수는 성령의 내주의 증거였다. 그와 마찬가지로 4:13에서도 상호 간 사랑의 계명을 지키면 (12절) 성도는 하나님과의 연합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데 그것의 근원은 바로 그런 깨달음을 주고 계명을 지키도록 해 주시는 성령인 것이다. 따라서 성령으로부터 주신 것은 바로 ‘진리의 깨달음’과 ‘사랑의 계명 준수에 대한 동기 부여’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진리를 알게 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가능하다. 이러한 해석은 요한1서에서 성령의 역할이 주로 진리의 계시를 비추어 주는 데 맞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힘을 얻는다.⁵⁵⁾

5. 접속사 ὅτι의 의미

이상에서 다루어진 내용에 비추어 볼 때, 4:13의 마지막 부분의 접속사 ὅτι는 이유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이 접속사의 요한1서에서의 용례도 이런 주장을 어느 정도 뒷받침해 준다. 이 접속사는 요한1서의 61구절에서 76번이나 등장하는데, 이것은 요한1서의 분량을 고려할 때 상당히 높은 빈도수라 할 수 있다.⁵⁶⁾ 76번 가운데 30번은 동사의 목적어로서 영어의 that처럼 종속절을 이끌고 있으며, 명확하게 이유를 나타내는 경우는 28번이다. 동사의 목적어나 이유 중 어느 쪽으로 쓰였는지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9개이며(2:12, 13[2번], 14[3번], 21[3번]), 그 외에 나머지 9개 가운데 ‘곧’을 의미하는 경우가 4번이고(1:5; 5:9, 11, 14), 전치사구 ἐν τούτῳ와 함께 쓰이는 경우는 4:13을 포함하여 5곳이다(4:9, 10[2번], 13, 17).

이상의 통계에서 알 수 있는 사항은 요한1서에서 접속사 ὅτι가 이유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주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동사의 목적어로 쓰일 때는 동

하는 것(사랑).

55) 요한1서에서 성령의 역할이 진리의 계시, 곧 깨달음과 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주석가들은 모두 인정한다. 대표적으로 앞서 언급한 히버트(D. E. Hiebert)와 크루즈(C.G. Kruse)의 주석을 참조하라. 또한 R. Schnackenburg, *The Johannine Epistles: Introduction and Commentary*, R. Fuller and I. Fuller, trans. (New York: Crossway, 1992), 144, 150을 보라.

56) 이러한 빈도수는 요한1서보다 훨씬 큰 분량의 고린도전후서와 비교할 때 극명하게 드러난다. 고린도전서에서 이 전치사는 54번, 후서에서는 48번 등장한다. 요한복음의 경우에도 237번 쓰여서 월등히 높은 빈도수를 드러내는데, 이것은 신약성경 책 중에서 가장 높은 빈도수이다. 요한복음보다 분량이 훨씬 많은 누가복음에서 160번 사용되는 것에 비추어 보면 이런 사실이 금방 드러난다.

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에 쉽게 구별이 가능하며, 다만 애매한 경우에 해당하는 아홉 개의 경우에는 명백하게 둘 다 가능한 경우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아홉 개의 경우에도 모두 문맥상 이유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거의 모든 영어 성경과 한글 성경, 그리고 대다수 학자들도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로 이해한다.⁵⁷⁾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요한1서에서 동사의 목적어가 없이 쓰인 경우에도 이유를 나타내기 위해서 접속사 ὅτι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서도 특별히 전치사구 ἐν τούτῳ와 함께 쓰인 경우가 주목을 끄는데, 4:9과 10절에서 이 접속사는 전치사구를 받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것은 문맥상 의미가 명쾌하기 때문이다. 이때 무엇보다도 전치사구와 접속사 사이에 많은 내용이 들어가지 않고 서로 가까이 위치해 있어서 둘 사이의 연결이 간명하다. 4:17의 경우에도 전치사구가 앞의 내용을 받는다고 대다수 학자들이 주장한다.⁵⁸⁾ 4:13의 경우에 두 번째 ὅτι는 전치사구 ἐν τούτῳ와 멀리 떨어져 있기에, 이 접속사가 전치사구를 받을 가능성은 낮다. 이 부분 이전의 논의에서 입증한 대로 전치사구가 앞의 내용을 받는다는 견해를 받아들이고, 이 부분에서 제시한 ὅτι의 용례를 고려해 본다면, 이 접속사는 이유를 표현한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접속사 ὅτι는 이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번역하는 것이 합당하다.

6. 결론

이상에서의 논의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리해 낼 수 있다.

(1) 요한1서 4:13의 전치사구 ἐν τούτῳ는 그 앞에 나오는 부분을 받는다고 보는 것이 문맥에 더 어울리며, 그렇게 할 때에 두 가지 측면, 곧 사랑의 계명 준수와 성령의 역사는 하나로 통합되어진다. 이런 이해는 요한1서의 문맥과 잘 어울리는데, 특별히 동일한 전치사구가 사용되는 3:24의 구문과 내용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2) 4:13의 또 다른 전치사구인 ἐκ τοῦ πνεύματος의 경우에 소유격은 출처/기원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주다’ 동사의 직접 목적어로 해석하기보다는 원문을 반영하여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 경우에 생략

57) 2:12를 예로 들자면, ‘나는 너희에게 쓰고 있다. 왜냐하면 …’으로 볼 수도 있고 ‘나는 너희에게 … 라고 쓰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다.

58) 브라운은 이 전치사구가 17절의 ἵνα절이나 ὅτι절, 혹은 이전 구절인 16하반절의 내용을 받는다고 보는 견해들을 소개하면서, 마지막 견해가 가장 타당성이 있다고 결론짓는다.

R. E. Brown, *The Epistles of John*, 526-527.

된 목적어는 ‘진리의 깨달음’과 그에 따르는 계명 준수, 곧 ‘사랑의 계명 준수를 위한 동기 부여’라고 할 수 있다. 성령을 통하여 진리의 깨달음과 사랑의 동기 부여가 주어진다는 사실이 표현된다.

(3) 두 번째 접속사 ὅτι는 이유를 표현하는 접속사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성도가 하나님/예수님과 연합을 깨달을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해 준다.

(4) 요한1서 4:13에서 『개역개정』을 비롯한 대부분의 한글 성경과 몇몇 영어 성경은 확실한 근거 없이 한쪽을 선택하여 전치사구 ἐν τούτῳ의 번역을 생략하면서 일방적 의미를 담아서 번역해 버렸다. 따라서 해석의 여지가 남도록 번역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하며 그에 따라서 두 번째 ὅτι도 적절하게 번역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요한1서 4:13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런 사실에 근거하여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안다. 이는 그가 우리에게 그의 성령으로부터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ἐν τούτῳ는 그 이전의 내용, 곧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을 담아내도록 표현하면서도 하나님과의 연합에 있어 성령의 주도적 역할도 함께 담아내게 되어 포괄적 의미를 내포하게 될 것이다.

<주제어>(Keywords)

요일 4:13, 요일 3:24, 요한1서의 성령, 전치사구 ἐν τούτῳ, 전치사구 ἐκ τοῦ πνεύματος.

1 John 4:13, 1 John 3:24, Holy Spirit in 1 John, Prepositional Phrase ἐν τούτῳ, the Prepositional Phrase ἐκ τοῦ πνεύματος.

(투고 일자: 2021년 7월 27일, 심사 일자: 2021년 8월 20일, 게재 확정 일자: 2021년 10월 21일)

<참고문헌>(References)

- 김상훈, “요한일서에서의 ‘코이노니아-조예’의 상관적 이해를 위한 의미론적 연구”, 「성경원문연구」 5 (1999), 80-93.
- 송영목, “아프리카스 성경의 번역 분석 - 요한1서 1장을 중심으로 -”, 「성경원문연구」 46 (2020), 220-242.
- 정창욱, “요한1서 3:6, 9절의 죄 문제 재연구”, 「성경원문연구」 41 (2017), 206-227.
- Akin, D. L., *1, 2, 3 John*, Nashville: B&H, 2001.
- Akin, D. L., *Exalting Jesus in 1,2,3 John*, Christ-Centered Exposition Commentary, Nashville: Holman, 2014.
- Bray, G., ed., *Ancient Christian Commentary on Scripture: James, 1-2 Peter, 1-3 John, Jude, New Testament XI*, Downers Grove, InterVarsity, 2000.
- Brooke, C. A. E., *Johannine Epistles*, Edinburgh: T&T Clark, 1912.
- Brown, R. E., *The Epistles of John*, Garden City: Doubleday & Company, 1982.
- Calvin, J., *1,2,3 John*, Wheaton: Crossway, 1998.
- Culy, M. M., *I,II,III John: A Handbook on the Greek Text*, Waco: Baylor University Press, 2005.
- Hiebert, D. E., *The Epistles of John*, Greenville: Bob Jones University Press, 1991.
- Jobes, K., *1,2,3 John*, Grand Rapids: Zondervan, 2014.
- Johnson, T. F., *1, 2, and 3 John*, Peabody: Hendrickson, 1991.
- Jung, Chang Wook, “Interpretation of the Sentences in 1 John 4:17”, Chongshin Review 26 (2021), 81-99.
- Kistemaker, S., *James, Epistles of John, Peter and Jude*, Grand Rapids: Baker, 1996.
- Klauck, Hans-Josef, *Der Erste Johannesbrief*, Zürich: Braunschweig, 1991.
- Kruse, C. G., *The Letters of John*, Grand Rapids: Eerdmans, 2000.
- Lieu, J. M., *I, II, & III John*, Louisville; London: Westminster John Knox, 2008.
- Marshall, I. H., *The Epistles of John*, Grand Rapids: Eerdmans, 1978.
- Schnackenburg, R., *The Johannine Epistles: Introduction and Commentary*, R. Fuller and I. Fuller, trans., New York: Crossway, 1992.
- Smalley, S. S., *1,2,3 John*, Waco: Word Books, 1984.
- Stott, J. R. W., *The Epistles of John*, Leicester: Inter-Varsity, 1988.
- Strecker, G., *The Johannine Letters*, L. M. Maloney trans., Minneapolis: Fortress, 1996.
- Wallace, D. B., *Greek Grammar: Beyond the Basics*, Grand Rapids: Zondervan, 1996.
- Yarbrough, R. W., *1-3 John*, Grand Rapids: Baker, 2008.

<Abstract>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of 1 John 4:13

Chang Wook Jung
(Chongshin University)

The Greek text of 1 John 4:13 reads as follows: Ἐν τούτῳ γινώσκουμεν ὅτι ἐν αὐτῷ μένομεν καὶ αὐτὸς ἐν ἡμῖν, ὅτι ἐκ τοῦ πνεύματος αὐτοῦ δέδωκεν ἡμῖν.

Some elements of the text draw our attention: (1) the prepositional phrase ἐν τούτῳ may refer to the preceding verse(s) or the following ὅτι clause; (2) another prepositional phrase ἐκ τοῦ πνεύματος requires a proper interpretation. It is not clear why the author of 1 John enlisted this ambiguous expression instead of a simple accusative form τὸ πνεύμα; (3) the last ingredient emerges in relation to (1), i.e., an appropriate understanding of the conjunction ὅτι in the last clause.

Intriguingly, all the Korean Bible versions regard the first prepositional phrase ἐν τούτῳ as pointing to the last ὅτι-clause, even though it is also possible for the phrase to refer to the content in the preceding verse(s). In addition, Korean Bible translations unanimously render the second prepositional phrase as denoting simply a direct object of the verb δίδωμι: ‘he gave us the spirit’.

Is the translation of Korean versions reliable and appropriate? In order to find an answer, I investigate the usage of the first prepositional phrase in 1 John by looking at scholars’ views and translations of Korean and English versions. Especially, 1 John 3:24b where a very similar sentence to the present verse occurs is closely analyzed and compared with the present verse. I demonstrate that the phrase refers more probably to the preceding verse(s) than the following part. As a result, translators of Bible versions are required to find a way to express such implication.

In addition, I examine scholars’ views concerning the second prepositional phrase, ἐκ τοῦ πνεύματος, and contend that the genitive case indicating *source* or *origin* is connected with the verb *to give* rather than the verb *to know*. I also attempt to demonstrate that the conjunction ὅτι in the last clause needs to be properly understood and translated as *because*.